

기획논문

일본 선사시대 무덤에 보이는 ‘집골(集骨)’의 사회적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huare@hanmail.net

국문초록

일본에 본격적으로 무덤이 등장한 것은 조몬시대부터로, 이때부터 다양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중 여러 사회적 배경에서 재장(再葬)이 등장하고, 재장의 한 형태로 다수의 유체에서 일부 인골만을 선별해서 함께 매장하는 집골묘(集骨墓)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집골묘는 조몬시대에는 여러 유체의 뼈 일부만을 모아 토광에 매장하는 집골묘의 형태로, 야요이시대에는 하나의 토기에 한 유체의 뼈 일부를 수납한 재장토기 여러 개를 하나의 토광에 매장하는 복수형재장묘의 형태로 등장한다. 유체에서 뼈 일부만을 골라내는 재장 과정은 사망 후 조령(祖靈)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통과 의례로서의 관념적 배경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령으로 인정받은 유체들의 뼈를 한곳에 모아 매장하는 집골은 또 다른 관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이 각각의 조령들을 한 곳에 매장함으로써 집단 간의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 재장과 집골이 성행한 시기는 모두 기후 한랭화와 외래문화와의 접촉 등으로 취락이 소규모화되고 사회 변동이 극심한 시기였다. 개별 집단 간의 결속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재장과 집골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제어 재장, 집골묘,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사회 변동

투고일 2026. 7. 3. 심사일 2026. 8. 27.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Social Significance of Bone Collections as Seen in Prehistoric Japanese Tombs

Yi, Kisung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t Archae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huare@hanmail.net

Abstract

Tombs first appeared in Japan during the Jōmon period, after which various types of tombs began to be constructed. Reburial then emerged as a practice within different social contexts. One form of reburial that came into use during this time was the “bone collection tomb,” in which only selected skeletal remains from multiple bodies were gathered and buried together. During the Jōmon period, these bone collection tombs took the form of pits. In the Yayoi period, the tombs evolved into multiple-vessel reburial graves, in which several vessels—each containing a portion of the bones from a single body—were buried together in a single pit. The process of reburial, in which only certain bones from a single body were selected, was carried out against the conceptual backdrop of a rite of passage that led to the deceased’s recognition as an ancestral spirit. By contrast, the practice of collecting the bones of already-recognized ancestral spirits and burying them together in one place rested on a different conceptual basis: it served as a mechanism to avoid conflict between groups and strengthen mutual bonds by having each group bury its own ancestral spirit in a single shared location. During the Jōmon and Yayoi periods, reburial and collective burial were most prevalent in times of severe social upheaval, marked by the downsizing of settlements due to climate cooling and contact with foreign cultures. Reburial and collective burial therefore functioned as social mechanisms to overcome this instability by fostering solidarity among individual groups.

Keywords: reinterment, collection-of-bones tomb, Jōmon period, Yayoi period, social upheaval

Received July 3, 2026 Reviewed August 27,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들어가며

일본에 본격적으로 무덤이 등장한 것은 조몬시대부터로, 이때부터 다양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중 여러 사회적 배경에서 재장(再葬)이 등장하고, 재장의 한 형태로 다수의 유체에서 일부의 인골만을 선별해서 함께 매장하는 집골묘(集骨墓)가 등장하였다.

집골묘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인데, 조몬시대에는 여러 유체의 뼈 일부만을 모아 토광에 매장하는 집골묘의 형태로, 야요이시대에는 하나의 토기에 한 유체의 뼈 일부를 수납한 재장토기 여러 개를 하나의 토광에 매장하는 복수형재장묘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집골의 다양한 형태는 각각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서 조령(祖靈)이 되기까지의 통과의례로서 재장 관념과, 소규모 취락이 분산 거주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집단 간 결속력을 확인·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가 합쳐져 여러 사람의 인골 일부를 같이 매장하는 ‘집골’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집골 사례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II. 집골묘에 대한 기존의 인식

1. 인골 연구의 시작

일본고고학에서 인골에 대한 관심은 일본고고학의 시작과 함께했다. 최초의 발굴 조사로 알려져 있는 1877년 오오모리패총(大森貝塚)의 조사에서 인골이 산란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것이 일본고고학 최초의 보고서인 『大森穴壙古物編』¹⁾에 보고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이 보고서에는 인골이 산란된 상태를 근거로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조몬시대 식인설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 초기 일본고고학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패총지대(貝塚地帯)로 불리는 간토지방(関東地方)에서 도호쿠지방(東北地方)까지의 태평양 연안지역에 분포하는 패총들에서 많은 수의 인골이 발견되면서 선사시대 인골 수집 붐이 일기도 하였다.² 특히, 1937년 지바현(千葉県) 지바시(千葉市) 야하기패총(矢作貝塚)에서 다수의 인골이 하나의 토광에 매장되어 있는 조몬시대의 사례가 최초로 확인되었고,³ 1939년에는 군마현(群馬県) 아가즈마군(吾妻郡) 히가시아가즈마초(東吾妻町) 이와비즈야마타카노스(岩櫃山鷹の巣) 암음유적에서 다수의 야요이시대 완형토기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는 인골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여,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다수합장 사례가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된 인골 자료는 초기 일본고고학의 ‘일본인 인종·민족론’의 바탕이 되었지만,⁴ 당시의 조사는 단순한 인골 수습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구체적인 장제, 인골 처리 등의 문제 인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보다 과학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인골 출토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인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에서 살펴볼 다수인집골묘·복수호재장묘 등 여러 유체를 한곳에 매장하는 무덤이 각지에서 확인되면서, 다양한 장제 및 인골 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2. 재장·합장·집골의 의미

일본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는 토광묘에서 방형주구묘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무덤의 매장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1 エドワード・モース, 『大森介墟古物編』, 東京大学法理文学部理科学会輯 第1編(1879).
 - 2 山田康弘, 『人骨出土例にみる縄文の墓制と社会』(同成社, 2008).
 - 3 武田宗久, 「下総国矢作貝塚発掘報告」, 『考古学』第9卷 第8号(1938).
 - 4 長田実, 「上州岩櫃山岩窟遺跡発掘記」, 『考古学』第11卷 第2号(1940).
 - 5 이기성, 「일제강점기 김해패총 조사의 학사적 검토」, 『김해 회현리패총』, 국립김해박물관 (2015).

기본적으로 사망 후 유체 처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단장(單葬)과 복장(複葬)⁶으로 구분된다. ‘복장’은 사망 후 유체를 임시로 처리하였다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상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장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최종 처리하는 장제를 뜻한다. 일본고고학에서는 ‘세골장(洗骨葬)’, ‘이차장(二次葬)’, ‘이중장(二重葬)’, ‘다차장(多次葬)’, ‘개장(改葬)’, ‘재장(再葬)’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는 개념상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고고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골장’은 오키나와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행해졌던 유체 처리 방식으로, 육탈된 뼈를 술 등으로 씻어 부정함을 없애고 재매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이 1950년대 일본고고학에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뼈를 술이나 물로 씻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⁷ 또한 ‘이차장’이라는 용어 역시 민족지에서는 3, 4차례에 걸쳐 장례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 적합하지 않다.⁸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본고고학에서는 ‘재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장은 일단 유체를 매장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백골화를 기다린 후, 유골을 파내어 다시 매장하는 등, 유체 또는 유골을 여러 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처리하는 장법을 의미한다. 재장의 풍습 자체는 조몬시대 이른 단계부터 시작되지만,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조몬시대 후·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성행하다가 방형주구묘, 목관묘, 토광묘 등의 새로운 묘제가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소멸된다.⁹

재장은 뼈의 매장 또는 처리 방식에 따라 일차장에서 수습된 뼈를 모아서 매장하는 집골묘(集骨墓)와 뼈를 토기에 매장하는 토기관장(土器棺葬), 뼈를 불에 태우는 소인골장(燒人骨葬)으로 구분된다. 조몬시대에는 재장묘의 대부분의 형식이 확인되지만 집골묘가 일반적으로, 매장되는 유체의 원래 수에 따라 소인수집

6 한국고고학에서 간혹 ‘복장’을 ‘합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복차장’이 올바른 용어이다.

7 設樂博己, 『弥生再葬墓と社会』(塙書房, 2008), 4쪽.

8 大林太良, 『葬制の起源』(角川書店, 1965).

9 石川日出志, 『再葬墓』, 『祭と墓と装い 弥生文化の研究 8』(雄山閣, 1987).

골묘(少人數集骨墓)와 10체 이상의 다인수집골묘(多人數集骨墓), 사지골을 방형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뼈를 모아 두는 반상집골묘(盤狀集骨墓)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¹⁰ 야요이시대의 재장묘는 토기, 특히 저장용기인 호를 사용하는 호관재장(壺棺再葬)이라는 점이 특징으로,¹¹ 함께 매장되는 호형토기의 수에 따라 단수형재장묘(單數型再葬墓)와 복수형재장묘(複數型再葬墓)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장은 장송의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의미가 있다. 조몬시대에 들어와 정주생활이 시작되면서 죽음 및 유체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부패하는 유체의 물리적·생물적 처리, 죽은 이가 생전에 담당하고 있던 사회적 역할의 대체, 유체(사자)의 주변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관념적 대응 등의 여러 측면에서, 조몬시대의 장제·묘제는 결국 유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재통합과 관념적인 안정을 연출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잡화된 과정이 ‘재장’인 것이다. 본격적인 정주생활이 시작되면서 동일지점의 매장 빈도가 높아지고 이전에 매장되었던 인골을 우연히 파내게 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파내 버린 인골을 다시 묻는 개장이 점차 복잡해지고 제도화되면서 재장이 확립된 것이다.¹² 한 번 매장된 유체의 뼈를 다시 여러 방식으로 처리하는 재장은 본질적으로 통과의례의 의미, 즉 죽음과 조상신으로 인정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의 통과의례로 이해되기도 한다.¹³

이러한 재장의 한 형태인 집골묘는 백골화된 유체의 일부만을 다시 매장하고 나머지는 태우거나 파쇄하는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해부학적으로 정위치가 아닌 인골이 어느 정도 정연하게 모여 있는 상태를 보이면 집골로 판단한다.¹⁴ 유체를 보존하여 영혼이 떠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뼈를 매장하는 관념과, 유체의 형태를 완전히 없애 사령이나 악령이 유해에 갇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서로 상반된 관념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유체를 보존하는 처리와 유체를 파괴한다

10 設樂博己, 「縄文時代の再葬」,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49集(1993a).

11 이기성,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한국학』46-4(2023), 160쪽.

12 小杉康, 「第八章 社会・思想に反映する遺構と遺物 一. 縄文祭祀と大規模記念物」, 『講座日本の考古学 4. 縄文時代 下』(青木書店, 2014), 446쪽.

13 谷口康浩, 「祖先祭祀の変容」, 『弥生時代の考古学 7 儀礼と権力』(同成社, 2008), 192쪽.

14 設樂博己, 앞의 논문(1993a), 11쪽.

는 통과의를 거쳐 사자가 조령(조령)으로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¹⁵

또한 집골묘는 다수의 인골이 함께 매장된다는 점에서 합장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골에 동일 부위의 중복이 없고 유체가 단독으로 매장된 것을 단독장, 인골에 동일 부위의 중복이 있고 동일 토광 중에 복수 개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합장이라고 한다. 합장 중에는 매장의 동시성이 보증되는 것을 동시합장, 개개 유체의 매장 시점에 시간차가 있는 것을 시차합장이라고 한다.¹⁶ 인골 일부를 넣은 호형토기 여러 개를 하나의 토광에 매납하는 복수형재장묘는 여러 명의 뼈가 한곳에 매장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합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합장은 ‘피장자들의 상호 관계’ 그리고 ‘피장자와 합장 행위자의 관계’라는 두 관계 중, 피장자들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집골의 경우 사망 시점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이기에 피장자들의 관계보다는 피장자와 합장 행위자와의 관계 또는 합장 행위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몬시대의 집골묘와 야요이시대의 복수형재장묘는 서로 다른 장제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유체에서 뼈 일부만을 골라 다시 함께 매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과정이기에 본고에서는 두 장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검토·비교해 보도록 한다.

다음에서는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 각각의 사례를 검토한다.

III. 조몬시대의 집골묘

조몬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의 재장묘가 확인되는데, 주로 동일본 지역의 조몬시대 후기부터 성행하였다. 여러 명의 인골을 함께 매장하는 조몬시대 집골묘

15 이기성, 앞의 논문(2023), 175쪽.

16 山田康弘, 「総論 縄文時代の葬制」, 『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 葬制』(同成社, 2007), 9쪽.

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지만 이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기온바라패총(祇園原貝塚)의 조사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특수한 매장 방식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의 보편적인 매장 방식이었는지 혹은 일반적인 매장 방식은 별도로 존재하며 어떠한 상징성을 보여 주는 특별한 사례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⁷ 이후 여러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100여 사례 이상의 재장묘와 집골묘가 조사되었는데, 다음에 서는 조몬시대의 재장 중, 여러 명의 인골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소인수집골묘와 다인수집골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집골묘의 사례

후쿠시마현(福島県) 산칸지패총(三貫地貝塚)에서는 1952년 발굴 조사에서 50체 이상의 인골이 발굴되었는데, 굴장·신전장 등의 단장 인골과 함께 2기의 다인수집골묘가 확인되었다. 다인수집골묘를 둘러싸듯이 두 개의 원형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집골을 포함한 합장 인골이 각 군에서 1례씩 확인된다. 3호 인골과 6호 인골은 2체 합장으로, 6호 인골은 장년 여성의 단장, 성년 남성의 3호 인골은 6호 인골에 동일하게 주축을 맞춘 상반신의 뼈에 대퇴골 등을 정렬하여 얹어 놓은 형태이다. 8호·9호·12호·13호 인골은 4체 합장으로, 대퇴골, 추골이 모두 두개골과 정합성이 없기에 재장으로 판단되는데, 4체 모두 여성으로 장년¹⁸ 2체, 숙년 2체이다.¹⁹ 그 외 번외(番外) A는 14체분의 다인수집골묘로 두개골을 원형으로 둘러놓았다. 성년~숙년 남성 2체, 성년~장년 여성 2체 이외의 인골의 성별이

17 菅谷通保, 『多遺体埋葬』, 『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葬制』(同成社, 2007).

18 고인골의 연령 구분은 보고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본고고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유아(幼児, 0~5세), 소아(小児, 6~15세), 성년(成年, 16~20세), 장년(壮年, 20~39세), 숙년(熟年, 40~59세), 노년(老年, 60세 이상) [鈴木隆雄, 「人骨に関する基礎知識」, 『考古学と人類学』(同成社, 1998)].’의 기준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연령 파악이 어려운 경우, ‘성인’, ‘미성인’의 용어도 사용하였다.

19 吉田格, 『三貫地貝塚』, 『福島県史 第6巻 資料編1』, 福島県(1964); 森幸彦·森本岩太郎(編), 『三貫地貝塚 福島県立博物館調査報告 第17集』(福島県立博物館,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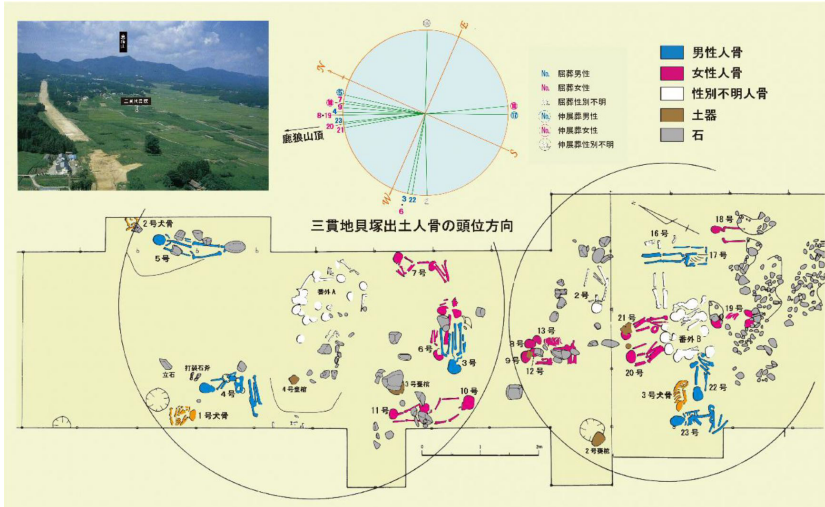


그림1-산잔지패총 출토 인골 배치도(新地町教育委員会 2023: 6, 三貫地貝塚出土人骨の配置図 전제)

나 연령은 불명이다. 번의 B는 9체분의 두개골을 모아서 원형으로 놓고 매장한 것으로 두개골의 안쪽에는 다발로 묶은 듯한 상태로 장관골(長管骨) 2군이 확인되었다. 2례의 다인수집골묘를 둘러싸듯이 단장 인골이나 소인수집골이 배치되어 있다.²⁰ 시기는 조몬시대 후기 말에서 만기 전반에 해당된다(〈그림1〉).

미야기현(宮城県) 게센누마시(気仙沼市) 다가라유적(田柄遺跡)의 4호 토광은 장년 2체와 유아 2체의 소인수집골묘로, 유아 1체는 단장이지만 다른 하나는 두개골만이 잔존해 있다. 묘광 바닥에는 성인 남성 뼈의 일부를 매장하였는데, 2체 모두 골반과 대퇴골만은 해부학적으로 정위치를 가지고 있다. 뼈를 연결하는 조직들이 부패해서 없어지기 전에 이 부분만을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남은 뼈를 올려놓았다. 시대는 조몬시대 후기 전엽에 해당된다(〈그림2〉).²¹

아이치현(愛知県) 이카와즈패총(伊川津貝塚)은 1984년도 조사에서 21기의 토광과 43체의 매장 인골이 확인되었다. 9기의 합장 중 5기가 집골묘로, 2체 집골

20 設楽博己, 앞의 책(2008), 148쪽.

21 阿部恵・百々幸雄(編), 『田柄貝塚 I 宮城県文化財調査報告書 第111集』(宮城県教育委員会,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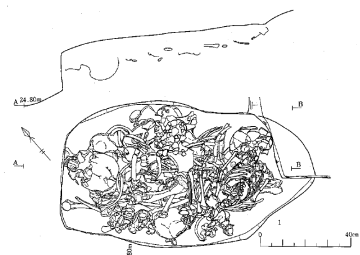


그림2-다가라유적 4호 토광(阿部恵・百々幸雄 編 1986: 154, 第89図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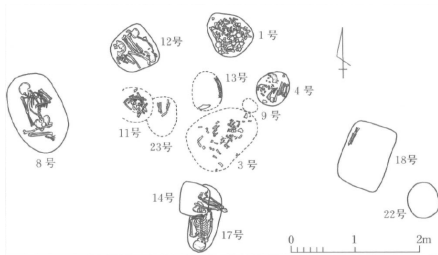


그림3-이카와즈패총 인골 배치도(設楽博己 2008: 147, 図68 전제)

묘 3기, 3체 집골묘 1기, 13체 집골묘가 1기이다. 이 중 2체 집골묘 1기와 3체 집골묘는 반상집골장이다. 재장은 모두 조몬시대 만기 초두에 해당된다.²² 13체 집골묘인 6호는 매장 시에 사지골을 묶은 듯한 예, 연결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 골장을 의식하고 매장한 예, 매장 시에 백골화가 일부만 진행된 예, 전혀 진행되지 않은 예, 불탄 유아골 등 다양한 유체 처리가 확인되는데 재장도 포함되어 있다. 묘표로 보이는 거대한 입석이 옆에 세워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그림3>).²³

지바현 이치카와시(市川市) 곤겐바라패총(権現原貝塚)의 X13Gh3区P65 토광에서 다인수집골 사례가 확인되었다. 토광은 장축 1.49m, 단축 1.33m의 부정연한 타원형에 깊이는 40cm의 규모로, 토광 바닥 중앙부에는 기둥구멍 형태의 작은 수혈이 있고, 수혈 내부 인골이 매장되어 있는 부분의 중앙이 원형으로 비어 있어, 목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광의 주위에는 인골이 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출토된 인골은 17~18체로, 성인 남성 6체, 성인 여성 4체, 미성인 남성 3체, 미성인 여성 3체, 성별 불명 성인 1체, 미성인 1체로 추정되는데, 아래턱뼈가 두개골과 이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각 유체의 사망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개골이 토광의 벽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고 사지골이 육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골이 무작위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의

22 春成秀爾, 「埋葬の諸問題」, 『伊川津遺跡 渥美町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4』(渥美町教育委員会, 1988).

23 設楽博己, 앞의 책(2008), 1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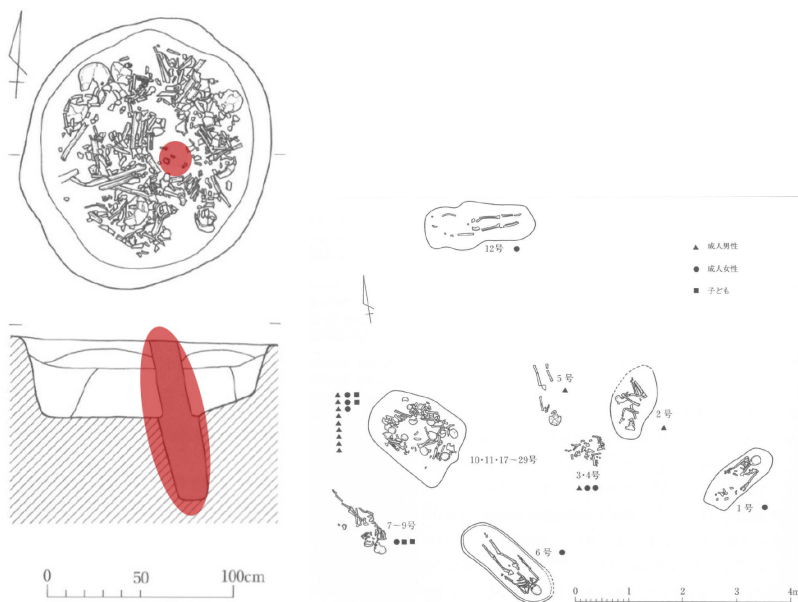


그림4-곤젠바라패총 X13Gh3区P65 토 광 단면 및 평면(設樂博己 2008: 142, 図66-1, 필자 편집) 그림5-고사쿠패총 인골 배치도(設樂博己 2008: 142, 図 66-3, 필자 편집)

도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무덤은 환상취락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2군의 건물지에 각각 인접해 있어 다인수집골토광과 소인골 1체분을 매납한 토광이 각각의 건물군에 부속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 건물지를 제사 건물지로 보기도 한다(<그림4>).²⁵

지바현 후나바시시(船橋市) 고사쿠패총(古作貝塚)은 1984년 조사된 유적으로, 토광 내에서 14체 이상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토광은 장축 1.8m, 단축 1.3m의 평면형태 말각장방형으로, 각 인골 사이에 간층이 존재하지 않기에 동시에 다수의 인골을 매장하였다고 판단된다. 인골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은 성인 남성 9체, 성인 여성 3체, 미성인 2체로, 인골의 아래턱뼈가 붙어 있는 것과 분리된 것이 있어, 매장 시 각 유체의 부패 상황이 서로 달랐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은 각 유체의

24 渡辺新, 『縄文時代集落の人口構造』(私家本, 1991).

25 渡辺新, 위의 책(1991), 33~41쪽,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토광을 중심으로 12체의 인골이 환상으로 출토되고 있어 다인수합장묘가 묘역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5>).²⁶

지바현 지바시 혼다타카다패총(誉田高田貝塚)은 1954년 최초의 발굴 조사에서 다인수집골묘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최소 개체는 17기로 파악되었다. 1990년에 이 토광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발굴하였는데, 토광은 직경 수m에 달하는 규모에 깊이는 20cm 정도이다. 벽에서 70cm 정도 떨어진 장소에 기둥구멍과 같은 소형 수혈이 있어 상부에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토 인골의 사이에는 간층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의 인골이 동시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며, 매장된 인골의 수는 1954년의 발굴 사례와 합치면 28체 이상이다. 추골이나 사지골이 완전히 분리된 것과 관절로 연결된 것 등 양상이 동일하지 않아 매장 시점에 개별 유체의 부패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인수집골묘 부근에는 매장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가 없는 공백지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다인수집골묘 주변을 묘역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 출토 토기 등으로 보아 다인수집골묘는 취락의 개설과 거의 동일 시점으로 추정된다(<그림6>).²⁷

지바현 이치하라시(市原市) 기온바라패총(祇園原貝塚)에서는 2기의 다인수집골묘가 발견되었다. B2-43区 토광은 장축 1.5m, 단축 1.4m의 타원형에 깊이는 20cm 정도로, 바닥면에서 5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으며, 주위에는 토광을 감싸듯이 10개의 기둥구멍이 있어 상부에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개골의 수로 보아 6체 이상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지골은 해부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으며 두개골에 비해 그 수가 적다. GIV310 토광은 장축 1.1m, 단축 0.9m의 타원형으로, 깊이는 60cm 정도이다. 두개골의 수로 보아 매장된 것은 5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토광에 접해서 5개의 기둥구멍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상부구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인수집골묘를 중심

26 設楽博己, 앞의 책(2008).

27 島津修久·森山英一·村津康, 『誉田高田貝塚』(学習院高等科史学部, 1954); 出口雅人, 『千葉市誉田高田貝塚確認調査報告書』, (財)千葉県文化財センター(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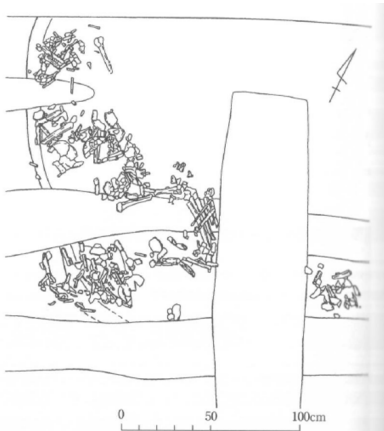


그림6-혼다타카다패총 인골 배치도(設楽博己 2008: 140, 図 65-4, 필자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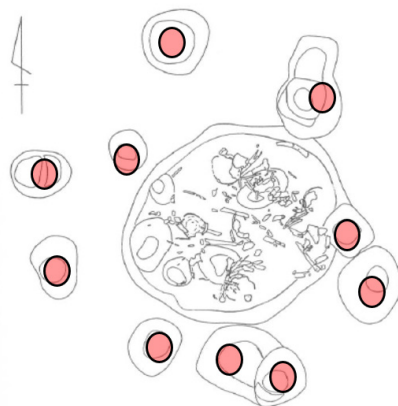


그림7-기온바라패총 제2례 배치도(設楽博己 2008: 143, 図 67-1, 필자 편집)



多数合葬墓 第1層



多数合葬墓 第2層



多数合葬墓 第3層



多数合葬墓 第4層

그림8-나카즈마패총 A토광 층위별 인골 출토(取手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08: 7, 사진 전제)

으로 해서 동시기의 인골 12체가 검출되었기에, 이 부근을 묘역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그림7〉).²⁸

이비라키현(茨城県) 도리데시(取手市) 나카즈마패총(中妻貝塚)은 G지점 A토광에서 다인수집골이 확인되었다. 직경 1.9m 정도의 원형에 최소개체수 106체가 넘는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인골 중에는 추골이나 아래턱뼈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각 개체의 사망 시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골은 성인 남성이 41체, 성인 여성 19체, 성년 여성 3체, 유아~소아 29체, 불명 4체이다.²⁹ 취락의 출입구 부근에 묘광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그림8〉).³⁰

2. 집골묘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인수집골묘는 평면형태 원형 또는 타원형의 토광 안에 재장 인골을 집골해 놓은 형태로, 토광의 벽을 따라 두개골을 늘어놓거나 장관골을 묶어서 쌓아놓은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다인수집골묘는 취락 또는 묘역에서 특별한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곤젠바라패총의 다인수집골묘는 환상취락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온바라패총의 다인수집골묘 역시 환상취락의 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 고사쿠패총과 혼다타카다패총의 다인수집골묘는 무덤군의 중심에 위치하며 다른 매장 인골들이 다인수집골묘를 둘러싼 배치를 보인다. 이렇듯 다인수집골묘는 당시 조성된 무덤군 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배치뿐만 아니라 다인수집골묘에는 표식이나 지봉 등의 상부구조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다. 곤젠바라패총의 다인수집골묘는 묘광의 중앙에 나무기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카와즈패총의 다인수집골묘 주변에도 입석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기온바라패총과 혼다타카다패총의 다인수집골묘 주위에는 기둥구멍이 있어, 아마 지봉 등의 상부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8 米田耕之助, 「縄文時代後期における一葬法」, 『古代』 第67号(1980); 鷹野光行, 「祇園原貝塚北側の道路造成部分に関する調査」, 『祇園原貝塚Ⅲ』(上総国分寺台発掘調査団, 1983)

29 宮内良隆・西本豊弘(編), 『中妻貝塚』(取手市教育委員会, 1995).

30 設楽博己, 앞의 책(2008), 144쪽.

즉, 다인수집골묘는 매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매장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해 놓았으며, 이것은 집골묘가 조성 집단에 있어 하나의 ‘기념물’로 작용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IV. 야요이시대의 복수형재장묘

야요이시대의 재장묘는 조몬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³²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이어진다. 조몬시대의 재장은 인골을 땅에 매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토기, 특히 호형토기에 인골의 일부를 넣어서 매장하는 호관재장이 보편적인 형태이며, 하나의 토기가 하나의 토광에 매납되는 단수형재장묘와 다수의 토기가 하나의 토광에 매납되는 복수형재장묘로 구분된다.

완형의 야요이시대 호형토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사례는 1930년대부터 확인되었지만, 당시는 이를 막연하게 무덤의 일종이며 토기를 부장품으로 추정하거나³³ 제사와 관련된 유적일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⁴ 이후 토기를 부장품으로 보는 기존의 의견에 대해 토광에 뿔뿔하게 토기가 매납되어 있어 유해를 넣을 공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골’의 방식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³⁵ 실제로 이것이 재장묘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1960년대의 일이다. 1963~1964년에 실시된 지바현 사쿠라시(佐倉市) 이와나텐진마에유적(岩名天神前遺跡)의 발굴 조사에서 토광에 매납된 세경호(細頸壺) 내부에서 인골이 출토되어,³⁶ 묘광에 매납된 호형토기가 인골 수납 토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복수의 토기를 매납한 토광에 대해 재장묘라는 인식이 급속히 진전되며 관련 연구가

31 山田康弘, 「モニュメントとしての多数合葬・複葬例再考」,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208集(2018).

32 石川日出志, 「a. 葬制」, 『日本の考古学 上』(学生社, 2005).

33 杉原莊介, 「上野岩櫃岩陰弥生式遺跡」, 『古代文化』 第12卷 第4号(杉原莊介, 1941).

34 田中国男, 「常陸国女方遺跡の発掘について」, 『古代文化』 第13卷 第5号(1942).

35 神沢勇一, 「墳墓 - 東日本 -」, 『日本考古学講座 4 弥生文化』(河出書房, 1955).

36 杉原莊介・大塚初重, 「千葉県天神前遺跡における弥生時代中期の墓址」, 『日本考古学協会 第30回総会研究発表要旨』(日本考古学協会, 1964).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토기 내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사례 자체가 그리 많지 않지만, 호형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거의 원형으로 여러 점이 한꺼번에 매납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재장묘로 판단한다.

다음에서는 복수형재장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재장묘의 사례

후쿠시마현 다테시(伊達市) 네고야유적(根古屋遺跡)은 아부쿠마천(阿武隈川)의 지류인 이시다천(石田川)에 형성된 하안단구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1년의 발굴 조사에서 약 12×4m의 조사범위 내에서 호상으로 군집된 25기의 재장묘와 2기의 토광묘 그리고 성격, 시기 불명의 토광 4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재장묘 그리고 재장묘와 관련된 유구, 유물만이 출토되고 다른 시기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장묘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수 기에서 10기 정도가 서로 중복되면서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으며 옆의 군과는 약간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다.

재장묘에는 총 122점의 토기가 매납되었는데, 그중 인골을 수납하는 용도로 추정되는 것은 107점 정도이며, 나머지는 뚜껑이나 받침 등으로 사용되었다. 재장토기는 호형토기가 75점, 웅 또는 발형토기가 20점, 기종 불명이 10점으로 호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나의 묘광에 매납된 재장토기는 5기의 토광을 제외하고 모두 복수로, 2점에서 13점까지의 토기가 토광에 매납되었다. 대부분 밀착상태로 직립해서 매납되어 있으며, 비스듬하거나 옆으로 놓인 것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눕혀 매납한 것은 없다.

토기 내부와 묘광에서는 다량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불탄 것으로, 뼈의 총량은 약 45kg이다. 토기 안에서 출토되는 인골은 약 2kg 정도이다(<그림9>).³⁷⁾

후쿠시마현 이시가와마치(石川町) 도리우치유적(鳥内遺跡)은 야시로천(社川)이 아부쿠마천(阿武隈川)과 합류하는 지점 주변의 하안단구상에 입지하고 있으

37) 梅宮茂·大竹憲治(編), 『靈山根古屋遺跡の研究-福島県靈山町根古屋における再葬墓群』(靈山根古屋遺跡調査団,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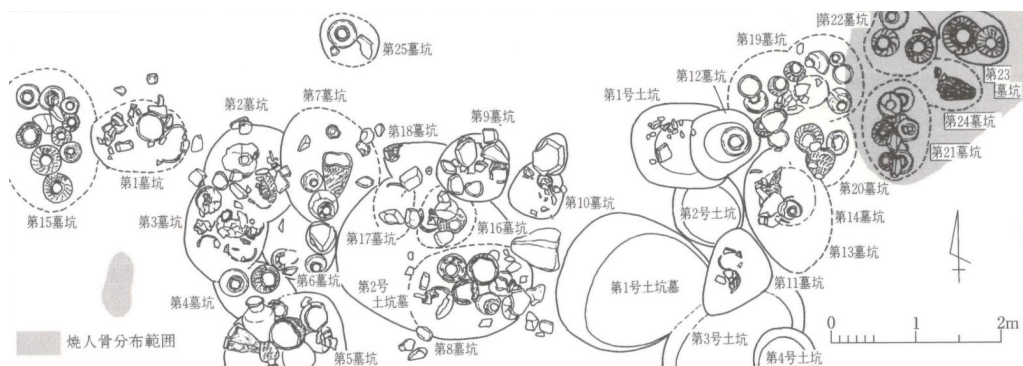


그림9-네고야유적 유구 배치도(設樂博己 2008: 27, 図 8-1 전제)

며, 1970~1971년 경지정리공사에 따른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동쪽 약 88㎡의 범위에서 13기 내지 14기의 복수형재장묘와 약 30점의 단독매납토기, 11기의 토광이 확인되었는데, 단독매납토기 중에는 단수형재장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수형재장묘는 조사범위의 동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대상(帶狀)의 형태로 이어지는데, 토광군을 중간에 두고 동서로 구분되어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다. 동쪽의 군에 6~7기, 서쪽의 군에 7기가 위치하며, 단독매납토기는 이들과 약간 중복되지만 주로 남동쪽의 재장묘가 없는 공백지대에 산재하고 있다. 토광은 재장묘군의 중간에 7기가 밀집되어 있고 그 외곽에 4기가 위치한다.

복수형재장묘에는 3~14점의 토기가 매납되어 있는데, 호형토기 40점, 웅·발형토기 4점, 기종 불명 15점으로 호형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스듬한 상태이지만 직립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며, 토기를 고정하기 위해 주위에 점토를 바른 예도 있다. 토압 등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깨진 것이 많지만 복수형재장묘의 토기 대부분은 어깨를 접하듯이 밀집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복수형재장묘 4기에서 출토된 토기 5점, 단수형재장묘 토기 1점의 내부에서 골편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동물 뼈로 토기 내부에서 인골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동쪽 재장묘군과 토광군의 중간 부근에서 인골편과 관옥 파편 4점이 밀집되어 출토되었다.³⁸ 출토 인골은 모

38 柴田俊彰(編), 『福島県指定史跡 鳥内遺跡 石川町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第16集』(石川町教育委員会, 1998).

두 불탄 것으로 재장토기에 수납하고 남은 뼈는 태우고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⁹

군마현 후지오카시(藤岡市) 오키Ⅱ유적(沖Ⅱ遺跡)은 가라스천(烏川)의 지류인 가부라천(鰯川)과 아유천(鮎川)의 유역에 형성된 자연제방의 남단에 입지하고 있다. 1983년 조사에서 재장묘 27기, 토광 45기, 불탄 흔적 2기,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재장묘는 13×12m의 범위에 밀집되어 있는데, 구에 의해 남북으로 구분되고 각 군은 2개의 소군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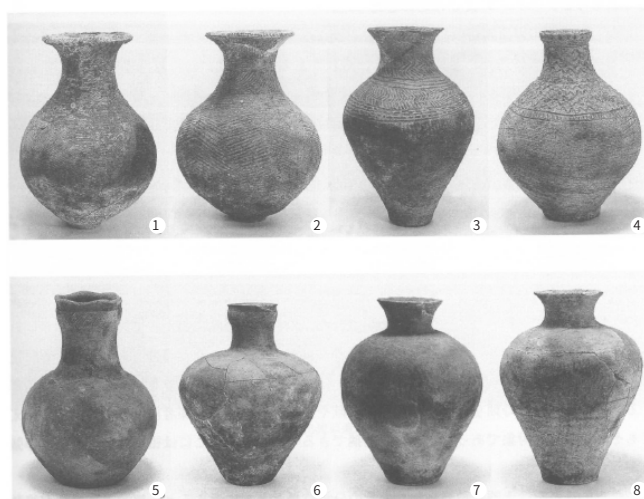


그림10-도리우치유적 19호 토광 및 출토 토기(設楽博己 2008: 63, 図 34 전제)

39 設楽博己, 앞의 책(2008), 3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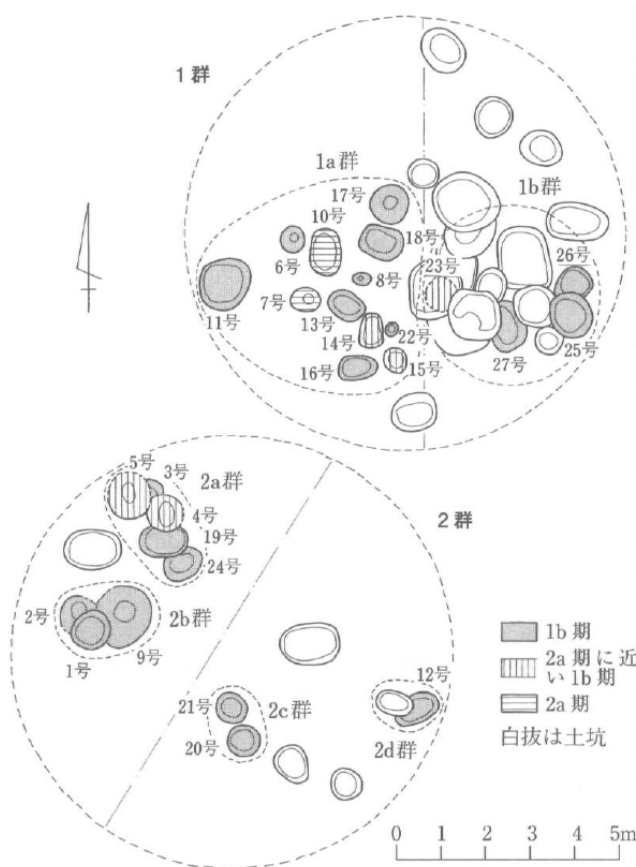


그림11-오키Ⅱ유적 유구배치도(設樂博己 2008: 215, 図 101 전제)

재장묘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말각방형으로 31~34점의 토기가 확인되었다. 호형토기는 17~18점, 심발·옹이 14~16점으로 호형토기가 많지만 다른 유적들처럼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발형토기나 토기편으로 뚜껑을 덮은 단수형재장묘가 7기, 뚜껑이 없는 단수형재장묘가 14~16기이며 복수형재장묘는 3~5기로 소수이다. 복수형재장묘 중 토기가 2점인 것이 2~3기, 토기가 3점인 것이 1~2기 정도이며, 토기는 직립하거나 약간 기울어진 상태의 것이 23점으로 가장 많고, 도치가 2점, 횡치가 2점이다. 자갈로 토기의 저부나 어깨 주변을 둘러싼 것, 돌을 뚜껑으로 사용한 것, 돌을 뚜껑 위에 올려 놓은 것 등 돌을 재장토기의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이 20점이다. 6점의 토기 내부에서 뼈나 치아가 확인되었

는데 모두 파편으로 성별이나 연령은 알 수 없다(<그림11>).⁴⁰

니가타현(新潟県) 시바타시(新発田市) 무라지리유적(村尻遺跡)은 구시가타 산맥(櫛形山脈)과 니노지다케(二王子岳) 산록에 끼어 있는 곡저평야의 설상고지에 입지해 있다. 1980~1981년의 조사에서 약 124㎡의 범위 내에 조몬시대 토광 수십 기와 함께 야요이시대 재장묘 10기와 토광 1기가 확인되었다. 재장묘는 3개의 군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1기·4기·5기이며, 재장묘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복수형재장묘 7기, 단수형재장묘 2기로 복수형재장묘는 2~6점의 토기가 매납되어 있다. 재장토기는 호형토기가 22점, 웅·심발이 2점, 인면장식부호(人面裝飾付壺) 1점으로, 인면장식부호는 단장 토광의 한쪽 구석에 매납되어 있는데 옆에는 불탄 뼈가 있고 그 위에 호형토기가 놓여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재장토기는 토광에 가득 차듯이 거의 직립하여 매납되어 있는데, 복수형재장묘는 토기들이 어깨를 접하듯이 밀착된 상태로 매납된 것이 대부분이다. 91호 토광은 6점의 토기가 말각장방형의 토광 내에 꼭 차게 2열로 매납되어 있다. 재장토기에서는 골편, 토광에서는 불탄 인골이 출토되었다(<그림12>).⁴¹

도치키현(栃木県) 사노시(佐野市) 이즈루하라유적(出流原遺跡)은 아시오 산지(足尾山地)의 남단에 펼쳐져 있는 낮은 대지상에 입지하고 있다. 1964~1965년 발굴 조사에서 34㎡의 정방형 조사구역에서 37기의 재장묘가 확인되었다. 재장묘는 2~10기 정도의 묘광으로 구성되는 8~10개의 소군으로 구분되는데,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대상(帶狀)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복수형재장묘 22~23기, 단수형재장묘 9기, 불명 5기가 확인되며, 복수형재장묘는 2~11점의 토기가 매납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는데, 그중 11호 묘광은 11점의 토기가 나란히 묘광 벽에 붙어서 매납된 양상을 보여 준다. 11호 묘광의 재장토기 중 1점은 인면장식부호이다. 7호·11호 묘광의 재장토기 3점, 제20·26호 묘광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묘광 출토 인골은 토기에 매납된 것인지는

40 荒巻実·若狭徹(編), 『C11 沖II 遺跡 藤岡市立北中学校分割校舎体育館建設工事に伴う埋蔵文化財 発掘調査報告書』(藤岡市教育委員会文化財課, 1986).

41 石川日出志(編), 『村尻遺跡I 新発田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 4』(新発田市教育委員会,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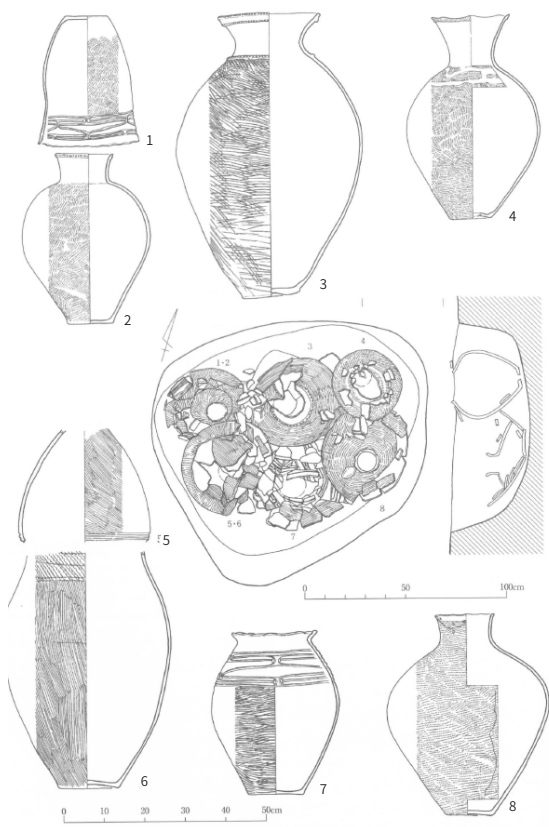


그림12-무라지리유적 91호 토광 및 출토 토기(設楽博己 2008: 62, 図 33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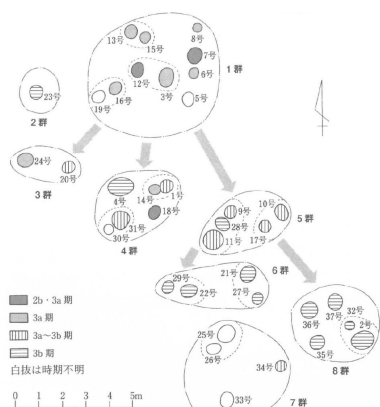


그림13-이즈루하라유적 유구배치도(設楽博己 2008: 215, 図 102 전제)



그림14-이즈루하라유적 11호 묘광(設楽博己 2008: 65, 図 36 전제)

명확하지 않다(〈그림13·14〉).⁴²

지바현 사쿠라시 이와나텐진마에유적(岩名天神前遺跡)은 인바누마(印旛沼) 남쪽 계곡을 바라보는 대지상에 입지하고 있다. 경작 과정에서 재장묘가 발견되어 1963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범위의 한쪽 10×6m 정도의 범위에서 7기의 재장묘가 출토되었다.

재장묘는 남쪽과 북쪽의 2군으로 구분되는데, 북쪽 군에 3기, 남쪽 군에 4기가 위치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불명확하며, 복수형재장묘가 3기, 단수형재장묘가 4기로, 출토된 재장토기 16점 중 호형토기 11점, 웅형토기 2점, 기종불명 3점이다. 토기의 출토 상황은 경작에 의한 교란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단수형재장묘는 직립상태인 것이 많고, 복수형재장묘 중 2기는 모두 횡치이다. 복수형재장묘에 매납된 토기는 2점의 것이 2기, 8점의 토기가 1기로, 8점의 토기가 매납된 2호 재장묘는 웅형토기만이 중앙에 직립한 상태로 있고 다른 토기들은 좌우에 겹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1호 묘광에서는 2점의 토기, 2호 묘광에서는 3점의 토기에서 각각 인골이 출토되었다(〈그림15·16〉).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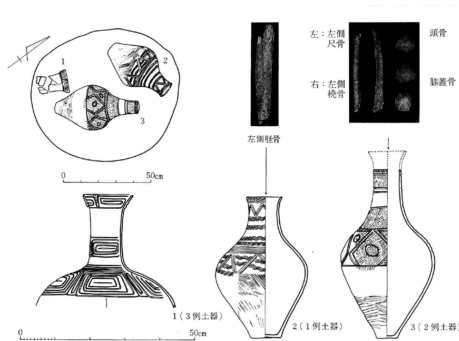


그림15-이와나텐진마에유적 제1호 토광 출토 토기 (設楽博已 1993b: 23, 図 6 전제)



그림16-이와나텐진마에유적 제1호 토광 출토 토기(메이지대학박물관 홈페이지)

42 杉原荘介, 「栃木県出流原における弥生時代の再葬墓群 明治大学文学部研究報告」, 『考古学 第8冊』(明治大学, 1981).

43 杉原荘介・大塚初重, 「千葉県天神前における弥生時代中期の墓址群 明治大学文学部研究報告」, 『古学 第4冊』(明治大学, 1974).

2. 복수형재장묘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야요이시대 재장묘의 인골 수납 용기로는 호형토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골이 수납된 토기 가운데 기종이 명확하게 판단되는 토기는 총 1,450점인데, 그중 호형토기가 1,204점으로 83%에 달한다(設樂博己 2008: 5). 토기 내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39개 유적으로 적은 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골편이나 가루편으로 연령·성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재장묘를 설명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 개의 재장토기에 한 사람의 유골 아니면 여러 명의 유골이 함께 수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인골이 남아 있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어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재장토기 중 여러 명의 뼈가 함께 수납된 경우는 네고야유적과 요시고패총(吉胡貝塚)뿐이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재장토기에 한 명의 유골을 수납했다고 볼 수 있다.⁴⁴

또 다른 문제로는 복수형재장묘의 경우, 하나의 토광에 몇 개의 토기, 즉 몇 명의 인골이 함께 매장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복수형재장묘에는 2~4점의 토기가 매납되어 있으며, 네고야유적 13점·무라지리유적 6점·오노텐진마에유적 12점·이즈루하라유적 11점·이와나텐진마에유적 8점이 매납된 토광처럼 10점 내외의 토기가 매납된 경우는 특수한 사례이다.

야요이시대의 복수형재장묘가 조몬시대의 집골묘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토기를 인골 수납 용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장에서 뼈를 골라내는 작업, 즉 재장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시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호형토기에 뼈를 수납하였다면 호형토기의 형식 차이에 따라 유골의 수납 시점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에, 야요이시대 복수형재장묘는 그 조성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재장묘의 조성 과정을 처음으로 분석한 스도 다카시(須藤隆)⁴⁵는 다

44 設樂博己, 앞의 책(2008), 48쪽.

45 須藤隆 編, 『福島県会津若松市墓料遺跡 1980年度発掘調査報告書』(会津若松市教育委員会, 1984).

음과 같이 재장 과정을 정리하였다. 우선 일차장으로부터 수년 후에 개장이 이루어지고, (1) 개장 시점에 일차장 유체의 일부가 토기에 수납되고 바로 토광에 매납되는 경우, (2) 개장 시점에 일차장 유체의 일부가 토기에 수납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토광에 매납되는 경우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복수형재장묘에 대해 (a) 토광 매납의 시점까지 개장 행위(토기 납골)가 반복되면서 복수의 납골토기가 모여지는 경우, (b) 일차장에서 모은 복수의 유체에 대해 개장 행위(토기 납골)가 동시에 행해지고 일괄해서 토광에 매장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복수형재장묘의 경우 다수의 개별 유체에 대한 재장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동일 시점에 다수의 개별 유체의 재장이 이루어지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수형재장묘의 경우, 토광에 인골이 수납된 토기가 매납되는 것은 동일 시점에 이루어지지만 개별 토기에 인골이 수납되는 것은 개별 유체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복수형재장묘의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매납토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형식 차이가 별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 토기에는 마모 흔 도는 수리공 등이 있어 각 재장토기가 일괄 매납되기까지 일정 정도 시간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토기의 매납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토광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며 토기 저부가 놓인 높이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높이가 다른 토기여도 어깨의 높이를 맞춘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복수의 토기가 일괄 매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⁴⁶

시타라 히로미(設樂博己)는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복수재장묘의 조성 과정을 5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토기에 복수의 토기가 매납되어 있고, 각각의 토기에는 서로 다른 사람의 뼈가 들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A는 다수의 토기가 시간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식일 경우, B는 토기의 형식이 시간차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나누어 5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였다.⁴⁷ 분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設樂博己, 앞의 책(2008), 61쪽.

47 設樂博己, 위의 책(2008), 57쪽.

A0 (동시납골일괄매납형) : 복수의 토기에 납골이 동시에 행해지고, 일괄 매납하는 경우.

A1 (단기집적일괄매납형) : 토기에 인골을 수납하는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인골이 수납된 토기를 토기 형식이 차이 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토광 매납하지 어딘가에 안치 또는 모아 두었던 경우.

A2 (단기추가장형) : 토광에 재장토기를 추가장하지만 토기에 시간적인 형식 차이가 없는 경우.

B1 (장기집적일괄매납형) : A1과 동일 과정을 거쳐 일괄매납하지만 토기에 시간적 형식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B2 (장기추가장형) : A2와 동일 과정을 거쳐 추가장이 이루어지지만, 토기에 시간적 형식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출토된 사례들을 위의 구분에 맞추어 보면 토기의 형식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인골을 토기에 수납한 시점의 차이는 일부 있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동시납골일괄매납형(A0) 또는 단기집적일괄매납형(A1)이 일반적이다.

V.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 집골의 사회적 의미

1. 재장과 집골의 관념적 배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장은 한 개인이 사망한 후 ‘조령(祖靈)’으로 인정받는 과정 중의 통과 의례라는 관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재장을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피장자를 자신들의 선조 혹은 조령으로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결국 피장자와 재장자는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장된 인골 다수를 모아서 한곳에 매장하는 집골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모두 집골을 행하는 사람들의 선조 또는 조령이었을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인수집골장 또는 복수형재장묘에 매납된 유체의 수였다. 현대 일본에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3세대 정도까지이며, 죽은

선조에 대한 기억도 3세대 정도까지 이해되고 있다. 만약 조몬시대도 이와 동일했다면 재장의 대상도 3세대 정도까지였을 것이지만,⁴⁸ 나카즈마패총에서는 두 개골만으로 96체, 혼다타카다패총에서는 28체 이상의 인골이 확인되어, 유체의 수만으로 생각한다면 한 혈연집단의 선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요이시대의 복수형재장묘는 조몬시대의 다인수집골묘에 비하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토광에 10체 이상의 인골이 매납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한 유적의 재장묘 전체로는 수십 체의 유골이 확인되어, 몇 개의 서로 다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골의 현상은 단순히 집골을 행하는 사람들이 피장자를 조령으로 인식하기 위한 재장 과정과 더불어 또 다른 배경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2. 집골의 사회적 의미

조몬시대의 다인수집골묘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그 배경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산간지패총의 다인수집골묘를 다른 매장 인골이 둘러싼 듯한 형태에 주목해서, 다인수집골묘와 다른 매장 인골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조령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시작으로,⁴⁹ 곤젠바라패총 취락이 두 개의 배타적인 그룹에 의해 조영되었으며, 다인수집골묘는 두 개의 배타적인 관계를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를 고찰하거나,⁵⁰ 유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이 있다는 해석⁵¹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후 점차 다인수집골묘의 조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확인되었다.⁵²

48 山田康弘, 앞의 논문(2018), 197쪽.

49 林謙作, 「縄文期の葬制-2-遺體の配列-とくに頭位方向」, 『考古學雜誌』63-3(1977), 21쪽.

50 渡辺新, 앞의 책(1991).

51 宇田川浩一, 「房総半島における縄文時代埋葬様式の変化について」, 『法政考古学』第20集(1993).

52 山田康弘, 앞의 논문(2018).

① 다인수집골이 이루어진 시기는 조몬시대 후기 전엽에 집중되어 있는데, 취락의 개시기 또는 형성 재개기에 해당된다. ② 묘광에 부속된 유구가 같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상부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③ 취락 내의 광장 또는 묘역의 중심부 등, 특수한 지점에 위치한다. ④ 다인수집골이 확인되는 토광에 근접해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구축된 주거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⑤ 출토 인골 중에는 신생아, 유아기 등의 인골은 없다. ⑥ 출토인골의 남녀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다인수집골묘가 성행하는 시점이었다.

다인수집골묘가 등장하는 것은 조몬시대 후기 전엽으로, 주로 취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조몬시대 중기에 대형 취락이 조성되기 시작하다 후기에 기후 변동으로 인해 점차 취락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⁵³ 중기 중엽부터 중기 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취락은 매우 적으며, 중기 말에 새롭게 다수의 취락이 조성되는데, 이때 시작된 취락 중 일부는 후기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중기에서 후기로의 취락 동태를 ‘중기 이후 취락의 붕괴 →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후기 취락의 형성’이라는 자연적 이행이 아니라, 일단 중기의 취락이 붕괴된 후, 다수의 소규모 취락으로 분산되고 그 후에 후기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⁵⁴ 그런데 다인수집골묘가 확인되는 취락은 중기에서 후기까지 계속 운영되었던 취락이 아니며, 대부분 후기 초두에서 전엽에 걸쳐 새롭게 만들어진 취락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다인수집골묘는 다수의 사람이 새롭게 모여 만들어진 취락에 조성된 무덤 형태인 것이다.

즉, 조몬시대 중기 후반이 되면 대부분의 대형 취락이 소멸하고, 중기 말에서 후기 초두에 소규모 취락이 형성된다. 그리고 후기 전반이 되면 소규모 취락의 주민들이 모여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취락을 조성하는데, 이때 사망시점이 다른 인골을 파내어 하나의 토광에 매장하는 새로운 무덤 형식이 등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묘광의 위치는 취락 내에서도 특별한 지점이며, 상부구조 또는 표식을 가진 상징적인 건조물로서 기능하였다. 즉, 새롭게 취락을 개설하는 시점에

53 山田康弘, 위의 논문(2018), 158쪽.

54 山本暉久, 「縄文時代中期終末期の集落」, 『神奈川考古』第9号(1980).

서로 다른 혈연관계를 포함한 복수의 집단이 동일한 생활 영역 내에 공존하며 생기는, 식료 확보 등의 여러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인수집골묘를 조성하였으며,⁵⁵ 이것에 의해 각 집단의 긴장 관계를 없애고 상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⁵⁶

야요이시대의 토기를 이용한 재장이 조몬시대의 토기관과 재장의 풍습에서 이어지기는 했지만, 호형토기를 인골 매납 용기로 사용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수렵채집경제의 조몬시대에서 도작농경의 야요이시대로의 이행이라는 문화 변동과 곡물저장의 기능을 가진 호형토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야요이시대의 재장, 농경, 대형호에는 어떠한 상징적 관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⁵⁷

앞에서 복수형재장묘의 조성 과정을 몇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였지만, 실제로 복수형재장묘의 토기는 형식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로 다른 형식의 토기를 인골 수납 용기로 사용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재장토기를 모아 두었다가 일괄 매납하는 경우, 즉 피장자와 복수형재장묘를 조성하는 자가 서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수 세대에 걸친 연령 차가 있는 인골들이 함께 매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토기 표면 관찰의 결과는 토기에 인골 수납 시점에서 매납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복수형재장묘에 매납된 유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 매납되었으며, 피장자와 재장 행위자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는지 상호 간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피장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마을 내에서 거행된 성인식에 참가하고 성인으로서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입지를 얻은 사람들은 강한 유대로 결속되어 일치단결과 상호협력에 의한 생활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뼈를 토기에 넣어서 제사 지내다 그들이

55 이러한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기 후반에서 후기 전엽까지 간토지방과 도호쿠지방에서 유행하는 배석유구(配石遺構)를 들 수 있다[山田康弘, 앞의 논문(2018)].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는 명확하지 않아 지역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알 수 없다.

56 山田康弘, 앞의 책(2008), 203~204쪽.

57 石川日出志, 앞의 논문(1987), 152쪽.

모두 죽었을 때 각각의 인골 수납 토기를 하나로 모아서 매장한 것⁵⁸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집단의 다양한 통과의례를 함께 경험한 비슷한 연령대로 규정되는 연령계제집단(年齡階梯集團)의 구성원이 개별 토기에 매장되고, 그 집단이 전부 사망하면 토광에 일괄 매납했다고 보기도 하였다.⁵⁹ 이러한 해석은 피장자 간 또는 피장자와 재장묘 조성자와의 관계를 혈연관계 이외에서 찾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재장묘의 집골에 남녀 조합이나 연령적으로는 성인과 소아와의 조합도 있어, 토기 형식으로 보아 한 세대 이상의 사망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⁶⁰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⁶¹

조몬시대와 유사하게 당시의 취락 양상은 복수형재장묘군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야요이시대의 재장묘는 도호쿠지방 남부,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100개소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는 수십 기의 토광묘로 대형의 묘역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 것에 반해, 동시대의 취락 양상은 불명확하다. 이와 같은 불분명한 취락 양상을 이동성이 높은 소규모집단으로 이해하며, 소규모 취락을 운영하던 동일한 조상을 가진 몇 개의 집단이 어느 시점에 공동으로 재장의 장례를 실시하는 것, 즉 복수재장묘를 여러 개의 소규모 취락이 공유한 공동묘지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⁶² 또한 재장과 집골은 공동의 조상에 대한 제사의 의미가 강하기에 이를 성지(聖地)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⁶³ 또한 재장묘에 인접해서 토기편이나 석기편 등의 유물이 집중되는 일상생활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통 때는 이동성이 높아 분산 거주하던 집단이 특정한 시점에 공동으로 장송의례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연결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⁶⁴

58 馬目順一, 「再葬墓」, 『考古学調査研究 ハンドブックス 1』(雄山閣, 1984).

59 田中琢, 「倭人争乱」, 『日本の歴史 2』(集英社, 1991).

60 設楽博己, 앞의 책(2008), 208쪽.

61 물론 야요이시대 복수형재장묘의 양상은 모두 동일하지 않아 동물 뼈가 출토되는 경우, 토기 외부에서 인골이 출토되는 경우 등도 있어 어디까지를 재장묘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DNA 분석 등이 실시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한계가 있어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62 石川日出志, 「東日本弥生墓制の特質」, 『新 弥生紀行』(朝日新聞社, 1999), 175쪽.

63 星田享二, 「東日本弥生時代初頭の土器と墓制 -再葬墓の研究-」, 『史館』第7号(弘文社, 1976).

64 石川日出志, 「第一章 弥生文化の地域的様相と発展 九. 関東地方」, 『講座 日本の考古学 5. 弥生時代 上』(青木書店, 2011), 406쪽.

이상에서 보았듯이 집골은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 그 양상과 배경에 일정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가 있다. 조몬시대 중기까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중시하여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매장 지점을 선정했던 조몬인들이 여러 집단의 인골들을 한곳에 모아 매장, 제사 지낸다는 것은 유체의 개성이 없어지고 생전의 혈연관계나 계보관계, 집단관계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 간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야요이시대 역시 유사하다. 조몬 종말기에서 야요이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락이 소규모화되고 분산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규모 집단들의 동족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동묘지 그리고 공동의 장례행위로 재장과 집골이 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조몬시대 중기에서 후기 전반의 다인수집골묘의 성행, 조몬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중기까지의 복수형재장묘의 성행 배경에는 취락의 소규모화와 분산화가 있는데, 이러한 취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 한랭화 등 불안정한 기후 변화를 들 수 있다.⁶⁵ 그러나 기후 한랭화가 직접적인 재장 또는 집골의 요인은 아니며, ‘한랭화에 의한 취락의 분산화 →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집단의 분열 → 동족집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집단 간 결합 필요성의 대두 → 동족 집단으로서의 계보 확인행위로서 공동의 조령제사 실시’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장과 집골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후 한랭화라는 자연환경 변동 외에도 문화적 변화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다인수집골묘가 등장하는 간토지방의 조몬시대 중기 말에서 후기 초두는 서일본으로부터 나카즈식(中津式)토기로 대표되는 외래계통 문화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이며, 야요이시대 재장묘가 성행하는 시기는 서일본으로부터 농경문화라는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 강했던 때로, 외래문화와의 접촉으로 자신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때에 집단 간 결합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재장과 집골이 기능했던 것이다.⁶⁶

65 設楽博己, 「再葬の背景 - 縄文・弥生時代における環境変動と対応関係」,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12集(2004).

66 設楽博己, 「縄文・弥生移行期の葬制変化(東日本)」, 『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 葬制』(同成社, 2007), 204쪽.

즉, 각 시대에 따라 요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소규모 취락 간의 결속력을 높여 극심한 사회 변동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제로서 재장과 집골이 등장, 성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공동의 ‘조령제사’라는 재장과 집골의 관념적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VI. 마치며

이상에서 조몬시대의 다인수집골묘와 야요이시대의 복수재장묘를 대상으로 그 관념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유체에서 뼈 일부만을 골라내는 재장 과정은 사망 후 조령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통과의례로서의 관념적 배경에서 실시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령으로 인정받은 유체들의 뼈를 한곳에 모아 매장하는 집골은 또 다른 관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이 각각의 조령들을 한곳에 매장함으로써 집단 간의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 재장과 집골이 성행한 시기는 모두 기후 한랭화와 외래문화와의 접촉 등으로 취락이 소규모화되고 사회 변동이 극심한 시기였다. 개별 집단 간의 결속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재장과 집골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다수의 인골이 출토되었다고 해도 DNA분석 등을 통해 집골된 다수의 피장자 간의 혈연관계 등이 밝혀진 사례는 극히 적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접근은 향후 한국 선사시대 장제의 관념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 논저

이기성, 「일제강점기 김해패총 조사의 학사적 검토」, 『김해 회현리패총』, 국립김해박물관, 2015.

이기성,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한국학』 46-4, 2023, 137~181쪽.

谷口康浩, 「祖先祭祀の変容」, 『弥生時代の考古学 7 儀礼と権力』, 同成社, 2008.

宮内良隆·西本豊弘 編, 『中妻貝塚』, 取手市教育委員会, 1995(山田康弘 2018 재인용).

菅谷通保, 「多遺体埋葬」, 『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葬制』, 同成社, 2007.

吉田格, 「三貫地貝塚」, 『福島県史 第6巻 資料編1』, 福島県, 1964(設楽博己 1993a 재인용).

渡辺新, 『縄文時代集落の人口構造』, 私家本, 1991(設楽博己 1993a 재인용).

大林太良, 『葬制の起源』, 角川書店, 1965.

島津修久·森山英一·村津康, 『誉田高田貝塚』, 学習院高等科史学部, 1954(山田康弘 2018 재인용).

馬目順一, 「再葬墓」, 『考古学調査研究 ハンドブックス 1』, 雄山閣, 1984.

梅宮茂·大竹憲治 編, 『靈山根古屋遺跡の研究-福島県靈山町根古屋における再葬墓群』, 靈山根古屋遺跡調査団, 1986(設楽博己 2008 재인용).

武田宗久, 「下総国矢作貝塚発掘報告」, 『考古学』 第9巻 第8号, 1938.

米田耕之助, 「縄文時代後期における一葬法」, 『古代』 第67号, 1980(山田康弘 2018 재인용).

山本暉久, 「縄文時代中期終末期の集落」, 『神奈川考古』 第9号, 1980.

山田康弘, 「総論 縄文時代の葬制」, 『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 葬制』, 同成社, 2007.

山田康弘, 『人骨出土例にみる縄文の墓制と社会』, 同成社, 2008.

山田康弘, 「モニュメントとしての多数合葬·複葬例再考」,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208集, 2018.

杉原莊介, 「上野岩櫃岩陰弥生式遺跡」, 『古代文化』 第12巻 第4号, 1941.

杉原莊介, 「栃木県出流原における弥生時代の再葬墓群 明治大学文学部研究報告」, 『考古学』 第8冊, 明治大学, 1981(設楽博己 2008 재인용).

杉原莊介·大塚初重, 「千葉県天神前遺跡における弥生時代中期の墓址」, 『日本考古学協会』 第30回総会研究発表要旨, 日本考古学協会, 1964.

杉原莊介·大塚初重, 「千葉県天神前における弥生時代中期の墓址群 明治大学文学部研

- 究報告」,『考古学第4冊』,明治大学,1974(設楽博己 2008 재인용).
- 森幸彦・森本岩太郎 編,『三貫地貝塚 福島県立博物館調査報告 第17集』,福島県立博物館,1988(設楽博己 1993a 재인용).
- 石川日出志 編,『村尻遺跡I 新発田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 4』,新発田市教育委員会,1982(設楽博己 2008 재인용).
- 石川日出志,「再葬墓」,『祭と墓と装い 弥生文化の研究 8』,雄山閣,1987.
- 石川日出志,「東日本弥生墓制の特質」,『新 弥生紀行』,朝日新聞社,1999.
- 石川日出志,「a. 葬制」,『日本の考古学 上』,学生社,2005.
- 石川日出志,「第一章 弥生文化の地域的様相と発展 九. 関東地方」,『講座 日本の考古学 5. 弥生時代 上』,青木書店,2011.
- 設楽博己,「縄文時代の再葬」,『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49集,1993a.
- 設楽博己,「壺棺再葬墓の基礎的研究」,『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50集,1993b.
- 設楽博己,「再葬の背景 -縄文・弥生時代における環境変動と対応関係」,『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12集,2004.
- 設楽博己,「縄文・弥生移行期の葬制変化(東日本)」,『縄文時代の考古学 9 死と弔い 葬制』,同成社,2007.
- 設楽博己,『弥生再葬墓と社会』,塙書房,2008.
- 星田享二,「東日本弥生時代初頭の土器と墓制 -再葬墓の研究-」,『史館』第7号,弘文社,1976.
- 小杉康,「第八章 社会・思想に反映する遺構と遺物 一. 縄文祭制と大規模記念物」,『講座 日本の考古学 4. 縄文時代 下』,青木書店,2014.
- 須藤隆(編),『福島県会津若松市墓料遺跡 1980年度発掘調査報告書』,会津若松市教育委員会,1984.
- 柴田俊彰(編),『福島県指定史跡 鳥内遺跡 石川町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第16集』,石川町教育委員会,1998(設楽博己 2008 재인용).
- 新地町教育委員会,「三貫地貝塚里帰り展示」,新地町教育委員会,2023.
- 神沢勇一,「墳墓 -東日本-」,『日本考古学講座 4 弥生文化』,河出書房,1955.
- 阿部恵・百々幸雄(編),『田柄貝塚I 宮城県文化財調査報告書 第111集』,宮城県教育委員会,1986.
- 宇田川浩一,「房総半島における縄文時代埋葬様式の変化について」,『法政考古学』第20集,1993.
- エドワード・モース,『大森介墟古物編』,東京大学法理文学部理科会輯 第1編,1879.
- 鈴木隆雄,「人骨に関する基礎知識」,『考古学と人類学』,同成社,1998.
- 林謙作,「縄文期の葬制-2-遺體の配列-とくに頭位方向」,『考古学雑誌』63-3,1977.

鷹野光行,「祇園原貝塚北側の道路造成部分に関する調査」,『祇園原貝塚Ⅲ』,上総国分寺台発掘調査団,1983(山田康弘 2018 재인용).

長田実,「上州岩櫃山岩窟遺跡発掘記」,『考古学』第11巻 第2号,1940.

田中国男,「常陸国女方遺跡の発掘について」,『古代文化』第13巻 第5号,1942.

田中琢,「倭人争乱」,『日本の歴史 2』,集英社,1991.

春成秀爾,「埋葬の諸問題」,『伊川津遺跡 渥美町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4』,渥美町教育委員会,1988(設楽博己 1993a 재인용).

出口雅人,『千葉市誉田高田貝塚確認調査報告書』,(財)千葉県文化財センター,1991(山田康弘 2018 재인용).

取手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中妻貝塚の発掘 縄文時代の研究と中妻貝塚 企画展』,取手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2008.

荒巻実・若狭徹(編),『C11 沖II 遺跡 藤岡市立北中学校分割校舎体育館建設工事に伴う埋蔵文化財 発掘調査報告書』,藤岡市教育委員会文化財課,1986(設楽博己 2008 재인용).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The Great Encyclopedia of Korean Folklore』.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 Abe, Megumi and Momoi, Yukio, eds., *The Tagara Shell Mound I: Miyagi Prefecture Cultural Properties Survey Report*, Vol. 111, Miyagi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1986.
- Aramaki, Minoru and Wakasa, Toru, eds., *Report on the Excav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Gymnasium at the Fujioka Municipal Kita Junior High School Branch Campus at the C11 Oki II Site*, Cultural Properties Division, Fujioka City Board of Education, 1986(Re-cited by Shitara 2008).
- Deguchi, Masato, *Report on the Confirmatory Survey of the Honda-Takada Shell Mound, Chiba City*, Chiba Prefecture Cultural Properties Center, 1991(Re-cited from Yamada 2018).
- Hayashi, Kensaku, "Burial Systems in the Jomon Period—2—Arrangement of Remains—Particular Reference to Head Orientation," *Journal of Archaeology*, Vol. 63, No. 3, 1977.
- Harunari, Hideji, "Various Issues Concerning Burial," *Ikawatsu Site: Atsumi Town Buried Cultural Properties Survey Report*, No. 4, Atsumi Town Board of Education, 1988(Re-cited in Shitara 1993a).
- Hoshida, Kōji, "Pottery and Burial Systems in Eastern Japan during the Early Yayoi Period—A Study of Reburial Graves," *Shikan*, No. 7, Kōbunsha, 1976.
- Ishikawa, Hideshi, ed., *The Murajiri Site I: Shibata City Buried Cultural Properties Survey Report*, No. 4, Shibata City Board of Education, 1982(Re-cited from Shitara 2008).
- Ishikawa, Hideshi, "Reburial Graves", *Rituals, Tombs, and Attire: Studies in Yayoi Culture*, Vol. 8, Yuzankaku, 1987.
- Ishikawa, Hideshi, "Characteristics of the Yayoi Burial System in Eastern Japan," *New Yayoi Journey*, Asahi Shimbun, 1999.
- Ishikawa, Hideshi, "a. Burial Systems," *Archaeology of Japan*, Vol. 1, Gakuseisha, 2005.
- Ishikawa, Hideshi, "Chapter 1: Regional Aspects and Development of Yayoi Culture, IX. The Kanto Region," *Lecture Series: Japanese Archaeology*, Vol. 5, *The Yayoi Period*, Vol. 1, Aoki Shoten, 2011.
- Kanzawa, Yuichi, "Tombs—Eastern Japan—," *Lectures on Japanese Archaeology*, Vol. 4: *Yayoi Culture*, Kawade Shobo, 1955.
- Kosugi, Yasushi, "Chapter 8: Architectural Remains and Artifacts Reflecting Society and Thought: I. Jōmon Ritual Systems and Large-Scale Monuments," *Lecture Series: Archaeology of Japan*, Vol. 4, Jōmon Period, Part 2, Aoki Shoten, 2014.
- Miyauchi, Yoshitaka and Nishimoto, Toyohiro, eds., *The Nakatsuma Shell Mound*, Toride City Board of Education, 1995(Re-cited from Yamada 2018).
- Mori, Yukihiko and Morimoto, Iwataro, eds., "The Sangkanji Shell Mound: Fukushima Prefectural Museum Survey Report," Vol. 17, Fukushima Prefectural Museum, 1988(Re-cited from Shitara 1993a).
- Morse, Edward, *Antiquities from the Omori-suke Ruins*, Compiled by the Science Committee of the Faculty of Law and Letters, University of Tokyo, Vol. 1, 1879.

- Nagata, Minoru,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Iwakurayama Rock Cave Site in Joshu," *Archaeology*, Vol. 11, No. 2, 1940.
- Obayashi, Taira, *The Origins of Funeral Rites*, Kadokawa Shoten, 1965.
- Shibata, Toshiaki, ed., *Fukushima Prefecture Designated Historic Site: Torinouchi Site—Ishikawa Town Buried Cultural Properties Survey Report*, Vol. 16, Ishikawa Town Board of Education, 1998(Re-cited from Shitara 2008).
- Shimazu, Nobuhisa, Moriyama, Eiichi & Muratsu Yasush, *The Honda-Takada Shell Mound*, History Department, Gakushuin High School, 1954(Re-cited from Yamada 2018).
- Shinchi Town Board of Education, *Homecoming Exhibition of the Sangkanji Shell Mound*, Shinchi Town Board of Education, 2023.
- Shitara, Hiroki, "Reinterment in the Jomon Period," *Research Reports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Vol. 49, 1993a.
- Shitara, Hiroki, "A Basic Study of Pot-Coffin Reburial Graves," *Research Reports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Vol. 50, 1993b.
- Shitara, Hiroki, "The Background of Rebur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ir Correlations in the Jōmon and Yayoi Periods," *Research Reports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Vol. 112, 2004.
- Shitara, Hiroki, "Changes in Burial Practices during the Jōmon–Yayoi Transition Period(Eastern Japan)," *Archaeology of the Jōmon Period 9: Death, Mourning, and Burial Practices*, Doseisha, 2007.
- Shitara, Hiroki, *Yayoi Reburial Graves and Society*, Hanawa Shobo, 2008.
- Sudo, Takashi ed., *Report on the 1980 Excavation Survey of the Buryo Site*, Aizuwakamatsu City, Fukushima Prefecture, Aizuwakamatsu City Board of Education, 1984.
- Sugaya, Michiyasu, "Multiple-Body Burials," *Archaeology of the Jōmon Period*, Vol. 9: *Death, Mourning, and Burial Systems*, Doseisha, 2007.
- Sugihara, Sosuke, "The Ueno Iwakubi Rock-Shelter Yayoi-Period Site," *Ancient Culture*, Vol. 12, No. 4, 1941.
- Sugihara, Sosuke, *Yayoi-Period Reburial Grave Complexes at Izurugahara, Tochigi Prefecture: Research Reports of the Faculty of Letters, Meiji University*, *Archaeology*, Vol. 8, Meiji University, 1981(Re-cited from Shitara, 2008).
- Sugihara, Sosuke & Otsuka, Hatsushige, "Mid-Yayoi Period Burial Sites at the Tenjinmae Site in Chiba Prefecture," *Abstracts of Papers Presented at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 Archaeological Association*, Japan Archaeological Association, 1964.
- Sugihara, Sosuke & Otsuka, Hatsushige, "A Group of Mid-Yayoi Period Burial Sites at Tenjinmae, Chiba Prefecture: Research Reports of the Faculty of Letters, Meiji University," *Archaeology*, Vol. 4, Meiji University, 1974(Re-cited in Shitara 2008).
- Suzuki, Takao, "Basic Knowledge of Human Skeletal Remains,"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Doseisha, 1998.
- Takano, Mitsuyuki, "Survey of the Road Construction Area on the North Side of the Gionhara Shell Mound," In *Gionhara Shell Mound III*, Kazusa Kokubunji-dai Excavation Team, 1983(Re-cited in Yamada 2018).
- Takeda, Munehisa, "Excavation Report on the Yahagi Shell Mound in Shimōsa Province," *Archaeology*, Vol. 9, No. 8, 1938.
- Tanaka, Kunio, "On the Excavation of the Onagata Site in Hitachi Province," *Ancient Culture*, Vol. 13, No. 5, 1942.

- Tanaka, Taku, "The Wajin Uprising" *A History of Japan*, Vol. 2, Shueisha, 1991.
- Taniguchi, Yasuhiro, "The Transformation of Ancestor Worship," *Archaeology of the Yayoi Period 7: Rituals and Power*, Doseisha, 2008.
- Toride City Buried Cultural Properties Center, *Excavation of the Nakatsuma Shell Mound: Research on the Jōmon Period and the Nakatsuma Shell Mound—Special Exhibition*, Toride City Buried Cultural Properties Center, 2008.
- Udagawa, Koichi, "On Changes in Jomon-Period Burial Practices on the Boso Peninsula," *Hosei Archaeology*, Vol. 20, 1993.
- Uname, Jun'ich, "Reinterment Graves," *Archaeological Survey and Research: Handbooks 1*, Yuzankaku, 1984.
- Umemiya Shigeru and Otake, Kenj, eds., *Studies on the Reizan-Negoya Site: A Group of Reinterment Graves at Negoya, Reizan Town, Fukushima Prefecture*, Reizan-Negoya Site Survey Team, 1986(Re-cited from Shitara, 2008).
- Watanabe, Arata, *Population Structure of Jomon-Period Settlements*, Privately published, 1991(Re-cited from Shitara 1993a).
- Yamada, Yasuhiro, "General Overview: Burial Practices of the Jōmon Period," *Archaeology of the Jōmon Period*, Vol. 9: *Death, Mourning, and Burial Practices*, Doseisha, 2007.
- Yamada, Yasuhiro, *Jomon Burial Systems and Society as Seen in Human Skeletal Finds*, Doseisha, 2008.
- Yamada, Yasuhiro, "A Reexamination of Examples of Mass and Multiple Burials as 'Monuments'," *Research Reports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Vol. 208, 2018.
- Yamamoto, Teruhisa, "Settlements of the Late Middle Jōmon Period," *Kanagawa Archaeology*, No. 9, 1980.
- Yi, Kisung, "An Academic Review of the Survey of the Gimhae Shell Mou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Gimhae Hoehyeon-ri Shell Mound*, National Gimhae Museum, 2015.
- Yi, Kisung, "Perceptions of the Body and Tombs in Prehistoric Japan," *Korean Studies*, Vol. 46, No. 4, 2023.
- Yoneda, Konosuke, "Single-Burial Practices In the Late Jōmon Period," *Ancient Japan*, No. 67, 1980(Re-cited from Yamada, 2018).
- Yoshida, Tadashi, "Sanganji Shell Mound," *History of Fukushima Prefecture*, Vol. 6, Source Materials 1, Fukushima Prefecture, 1964(Re-cited from Shitara 1993a).

Figure

Figure 1. Layout Diagram of Human Remains Excavated from the Sankanjishi Shell Mound (Shinchi Town Board of Education 2023: 6, reprinted from "Layout Diagram of Human Remains Excavated from the Sankanjishi Shell Mound")

Figure 2. Pit No. 4 at the Tagara Site (Abe, Megumi and Momoi, Yukio (eds.), 1986: 154, reprinted from "Figure 89")

Figure 3. Layout Diagram of Human Remains from the Ikawazu Shell Mound (Shitara, Hiroki 2008: 147, reprinted from Figure 68)

- Figure 4. Cross-section and Plan View of Pit P65 in Section X13Gh3 of the Kongenbara Shell Mound (Shitara, Hiroki 2008: 142, Figure 66-1, edited by the author)
- Figure 5. Layout of Human Remains at the Kosaku Shell Mound (Shitara, Hiroki 2008: 142, Fig. 66-3, edited by the author)
- Figure 6. Layout of Human Remains at the Honda-Takada Shell Mound (Shitara, Hiroki 2008: 140, Fig. 65-4, edited by the author)
- Figure 7. Layout Diagram of Sample 2 from the Gionbara Shell Midden (Shitara, Hiroki 2008: 143, Fig. 67-1, edited by the author)
- Figure 8.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ed by Stratum from Pit A at the Nakatsuma Shell Midden (Toride City Buried Cultural Properties Center 2008: 7, photograph reprinted)
- Figure 9. Site Plan of the Negoya Site (Shitara, Hiroki 2008: 27, Figure 8-1, reprinted)
- Figure 10. Pit No. 19 at the Toriuchi Site and Excavated Pottery (Shitara, Hiroki 2008: 63, Figure 34, reprinted)
- Figure 11. Site Plan of the Oki II Site (Shitara, Hiroki 2008: 215, reprinted from Fig. 101)
- Figure 12. Pit No. 91 at the Murajiri Site and Excavated Pottery (Shitara, Hiroki 2008: 62, reprinted from Fig. 33)
- Figure 13. Site Plan of the Izuruhara Site (Shitara, Hiroki 2008: 215, reprinted from Fig. 102)
- Figure 14. Grave Pit No. 11 at the Izuruhara Site (Shitara, Hiroki 2008: 65, reprinted from Fig. 36)
- Figure 15. Pottery Excavated from Pit No. 1 at the Iwanatenjinmae Site (Shitara, Hiroki 1993b: 23, Figure 6, reprinted)
- Figure 16. Pottery Excavated from Pit No. 1 at the Iwanatenjinmae Site (Meiji University Museum website)